

# 조선시대 보례불식(簠簋不飾)의 함의와 제기(祭器)의 도철·거북문과의 관계

구혜인

추계예술대학교, 시간강사, 미술사학 전공  
human180@daum.net

- I. 머리말
- II. 보례불식의 의미와 ‘불식(不飾)’에 관한 문제제기
- III. 조선시대 보례불식의 정치적 인용과 번역
- IV. 보례불식의 진의(眞意)-보례에 장식된 도철문과 거북문
- V. 맺음말

## I. 머리말

보(簠)와 궤(簋)는 제향에서 곡식을 담은 용도로 사용된 제기로, 제상(祭床) 중앙에 진설되는 반기(飯器)이다(도1). 보는 쌀(稻)과 수수(粱)를, 궤는 메기장(黍)과 찰기장(稷)을 담아 신위 앞에 올렸다. 보와 궤는 중국 고대의 예기로 주대(周代)부터 그 형태가 완성되고 서로 조합을 이루는데, 동시에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대응한다. 우선 형태 면에서 중국 고대의 보는 외방내원(外方內圓), 궤는 외원내방(外圓內方) 형태를 갖고 있다. 이후 조선시대 보와 궤는 송대(宋代) 『석전의도(釋奠儀圖)』를 따라 내외면의 형태가 일치하게 되어서 보는 사각형, 궤는 원형의 용기로 제작되었다.<sup>1)</sup> 기존 연구에 따르면 현전하는 보궤의 수량은 종묘와 국립고궁박물관의 소장품을 기준으로 유기제(鑄器製) 보는 335점(몸체 253점, 뚜껑 82점), 유기제 궤는 329점(몸체 245점, 뚜껑 84점)으로 적지 않은 수량이 현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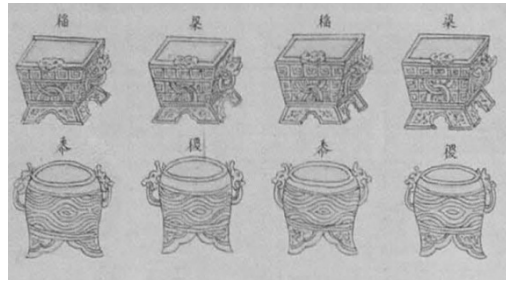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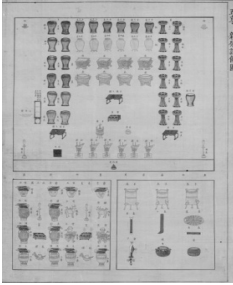
제기에 관한 연구 성과는 주로 역사학과 미술사학 분야에서 다양하고 두텁게 축적되고 있다.<sup>2)</sup> 그러나 제기의 중심기물이라고 할 수 있는

---

1) 국립고궁박물관, 『宗廟』(2014), 204-205쪽 참조. 김종임, 「朝鮮時代 王室 金屬祭器 研究: 宗廟祭器를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2009), 52쪽, 66쪽.

2) 조선시대 제기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과 미술사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제기는 여타의 기물보다도 사상과 제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기물인 만큼 사상, 제도, 圖式, 기형에 관한 접근이 서로 교차되어 연구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기에 관한 연구는 국가 전례서, 의례, 예서와 같은 기록물과 제기라는 물질문화를 통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1967년 문화재관리국의 조선왕조 제기에 관한 초기 조사 연구를 시작으로 이후 다양한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왔다. 제기에 관한 연구는 역사학과 미술사학을 두 축으로 제기와 제수의 진설, 제도와 도식, 중국 예서와의 영향관계, 재질별 조형 분석(금속, 도자), 제기에 남겨진 명문을 통한 제작 시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어 궁중 미술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가 쌓여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초기 연구와 개론적 성격의 연구물들은 다음과 같다. 황경환, 『朝鮮王朝의 祭祀』(문화재관리국, 1967); 문화재관리국, 『宗廟祭器』(1976); 尹邦彦, 『朝鮮王朝 宗廟와 祭禮』(문화재청, 2002); 최순권, 「宗廟祭器考」, 『宗廟大祭文物』(궁중유물전시관, 2004); 손명희, 「종묘제향을 위한 그릇과 도구」, 『종묘』(국립고궁박물관, 2014) 등. 제기를 연구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 즉 제기의 재질(금속, 도자)을 기준으로 한 연구와 각종 예서의 도식과 제도를 중심으로 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명확한 구분은 어려우나 선행 연구들에서 중심 주제를 금속, 도자, 제도와 도식의 순서로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洪貞珠, 「朝鮮王朝時代의 祭具에 關한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1983); 사공영애, 「朝鮮 王室 香爐 研究-古銅器形 香爐를 中心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2007); 김종임, 앞의 논문(2009); 김종임, 「朝鮮王室 金屬祭器 研究: 宗廟祭器를 中心으로」, 『美術史學研究』 277(한국미술사학회, 2013); 장경희, 「殿崇德 제기유물의 제작시기와 양식고찰-종묘제기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조형디자인연구』 Vol. 18(한국조형디자인학회, 2015); 정소라, 「朝鮮時代



도1-1-〈五享親祭設饌圖〉, 도1-2-〈五享親祭設饌圖〉의 보와 궤 확대 부분  
「宗廟親祭規制圖說屏風」  
제6쪽, 국립고궁박물관

보와 궤를 단독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개진되지 않았으며, 특히 보와 궤 문양의 외형적 양식분류가 아닌 정치적·사상적 함의에 대해서는 고찰되지 않았다.

제기는 사상(철학), 의례(정치와 생활), 물질(기물)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특수한 예기(禮器)라는 점에서, 학문분야의 근대적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과 통섭이 요구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 제기에 관한 연구를 여러 각도에서 궁구해왔듯이, 보궤에 관한 연구도 중국 예서(禮書)와의 영향관계, 제수와 진설방식, 기형과 문양의 시대적

---

陶瓷祭器 研究 -충효동출토 분청제기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1997); 정소라, 「朝鮮前期 吉禮用 粉青祭器 研究-忠孝洞窯址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美術史學研究』 223(한국미술사학회, 1999); 안성희, 「朝鮮時代 陶瓷祭器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2005); 안성희, 「16-17세기 朝鮮 白磁祭器의 새로운 경향」, 『美術史學』(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8); 최순권, 「조선시대 彝章에 대한 고찰」, 『생활문화연구』 14(국립민속박물관, 2004); 하은미, 「宗廟祭器와 朝鮮時代 祭器圖說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2010); 박봉주, 「조선시대 국가 祭禮와 尊罍의 사용」, 『朝鮮時代史學報』 58(朝鮮時代史學會, 2011); 박봉주, 「조선시대 국가 祭禮와 饗豆의 사용」, 『東方學志』 제159집(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2); 박수정, 「조선초기 儀禮제정과 犧尊·象尊의 역사적 의미」, 『朝鮮時代史學報』 60(朝鮮時代史學會, 2012); 곽현우, 「朝鮮時代 王室의 金屬祭器와 祭器圖說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2015) 등. 이 외에 조선시대 종묘제례의 제기와 제수의 진설원리에 관한 연구, 제기를 제작했던 鑪器匠人이나 제기의 명문을 주제로 한 연구 등이 있다. 이귀영, 「宗廟祭禮의 祭器와 祭需의 진설 원리」, 『美術史學』 27(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3); 장경희, 「조선후기 王室祭器 鑄成 鑪器匠 연구」, 『韓國工藝論叢』 11(한국조형디자인협회, 2008); 장경희, 「종묘 소장 王室祭器의 銘文 분석: 제작연대와 사용처의 고증을 중심으로」, 『도시역사문화』 8(서울역사박물관, 2009) 등. 보와 궤는 위 연구물들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으며, 일부 논문에서 용도, 진설방식, 제작기법, 문양 도설과의 상관관계를 다룬 바 있다. 그러나 문양의 외형적 양식분류가 아닌 정치, 사상적 함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집중적으로 고찰되지 않았으며, '보궤불식'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변천과정, 사상과 사용의 관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필자는 보개의 표면에 장식된 ‘문양이란 주제에 대해 사상과 정치 그리고 물질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시발점은 정치용어인 ‘보궤불식(篋篋不飾)’론(論)에서부터이다. ‘보궤불식’은 정치가 행해지는 공간에서 청렴하지 못한 관리를 은유적으로 이르는 죄명(罪名)이다. 제기가 국가의 제사에 쓰이는 중대한 기물이므로 기록에 자주 등장하기는 하지만 ‘보궤불식’처럼 정치용어로 조어(造語)된 경우는 거의 없어 주목된다. 보궤불식은 중국 주대에서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 정치용어로 활용되었고, 조선시대에도 정치 공간에서 관용어로 사용되었다. 보궤불식은 다양한 제기 중에서도 특별히 보와 궤 그리고 장식이라는 물질이 갖는 문화적 상징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용어로 사용된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보궤불식의 번역과 해석에 대한 현황과 문제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보궤불식이 왜 ‘불렴(不廉)한 관리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되었는지에 관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 번역서마다 보궤불식에 관한 해석이 분분하다.<sup>3)</sup> ‘보궤를 잘 정돈하지 못했다, 보궤를 더럽혔다, 보궤가 불결하다’라는 번역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식(飾)’을 ‘정돈과 관리’의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보궤를 장식하지 않았다, 보궤를 꾸미지 않았다’로 해석하여 ‘식(飾)’을 ‘꾸밈’ 혹은 ‘장식’의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필자가 실제로 현전하는 중국과 조선의 보궤를 분석한 결과, 후자의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논증하겠다.

마지막으로 ‘식(飾)’이 함의한 구체적인 문양 종류를 문헌과 실제 현전하는 조선시대 보개의 조형 분석을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 각종 예서들과 현존 유물들을 연구하여 보개의 문식(文飾)을 밝히고 그 의미와 장식 목적을 찾아보겠다.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제기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시도함으로써, ‘보궤불식’의 진의(眞意)를 밝히고 ‘보궤불식’의 재해석을 통해 ‘언어-상징-물질’이 갖는 긴밀한 상호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3) 조선시대 문헌뿐만 아니라 중국 문헌들 중에서도 보궤불식이 왜 청렴하지 못함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다. 중국에서도 보궤불식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데, 不飾은 ‘不整齊, 破損, 與列鼎不相配合’ 등으로 해석되며 그중에서 篋篋不整齊란 해석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 II. 보궤불식의 의미와 ‘불식(不飾)’에 관한 문제제기

보궤불식이 등장하는 가장 이른 기록은 『공자가어(孔子家語)』 「오형해(五刑解)」 중에서 공자와 염유(冉有) 간의 대화기록으로 알려져 있다.<sup>4)</sup>

…… 염유가 공자에게 묻기를, ‘선왕이 법을 제정함에 형벌은 대부에게까지 올리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대부는 죄를 범하여도 형벌을 가할 수가 없습니까?’ 하니 공자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무릇 군자를 다스림에 예로써 군자의 마음을 어거하여야 하니, 염치의 절도로써 부탁하여야 한다. 그런 까닭에 **예전의 대부는 그가 청렴하지 못하고 탐오한 죄에 연좌됨이 있는 자는 ‘불렴오예(不廉汚穢)라 이르지 않고 ‘보궤불식(篋簋不飾: 보궤를 관리하지 못했다)’이라 말하였고**, 음란하고 남녀의 분별이 없는 데에 연좌된 자는 ‘음란무별(淫亂無別)’이라 이르지 않고 ‘유박불수(帷簿不修: 침실을 단속하지 않았다)’라 말하였으며, 유약(柔弱)하여 임무를 감당하지 못함에 연좌된 자는 ‘파연불승임(罷軟不勝任)’이라 이르지 않고 ‘하관부직(下官不職: 파면된 자의 부하가 직무를 해내지 못하다)’이라 말한 것은 (그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sup>5)</sup>

공자가 언급한 ‘보궤불식, 유박불수, 하관부직’은 인군의 예치(禮治)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공자가 도덕정치의 기준으로 가장 자주 거론하는 것이 예이며, 유학의 도덕정치는 곧 예치라고 할 수 있다.<sup>6)</sup> 공자가 형벌이 아닌 예를 통해서 지도계층을 교화하고 감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예기(禮記)』의 ‘禮不下庶人 刑不上大夫’과 일맥상통한다.<sup>7)</sup>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되, 형벌의 집행과 밀접하게 관련시켜 정치적으로 활용한 사람은 중국 서한(西漢)의 관료였던 가의(賈誼, BC 200-BC 168)라고 할 수 있다.<sup>8)</sup> ‘보궤불식’이란 용어는 공자 이전 시대부터 조어되어

4) 이를 통해 보궤불식은 공자 이전 시대인 周代에 만들어진 용어로 추정된다. 『孔子家語』第七卷 「五刑解」.

5) 『孔子家語』第七卷, 「五刑解」. “…… 冉有問於孔子曰 先王制法 刑不上於大夫 然則大夫犯罪 不可以加刑乎 子曰 不然 凡治君子 以禮御其心 所以屬之以廉恥之節也 故古之大夫 其有坐不廉汚穢者 不謂之不廉汚穢 曰篋簋不飾 坐淫亂無別者 不謂之淫亂無別 曰帷簿不修 坐罷軟不勝任者 不謂之罷軟不勝任 曰下官不職 所以愧恥之也. ……”

6) 최진덕, 「주자학적 예치의 이념과 그 현실」, 『유교의 예치이념과 조선』(청계, 2007), 165-166쪽. 예치, 덕치, 법치는 서로 상호작용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위 연구를 참고할 것.

7) 『禮記』, 「曲禮」.

8) 가의가 보궤불식을 언급한 것은 가의의 정치사상에 기인한다. 그가 남긴 저술과 상소 문들은 『新書』에 남겨졌고, 유교 사상사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는데 조선시대 정치관료

공자도 인용하였지만, 조선시대에 보궤불식이 인용될 때 자주 거론되는 원전은 가의의 상소문인 「양태부가의상소(梁太傅賈誼上疏)」이다. 가의는 진나라의 가혹한 법치주의적 형법에 대응하는 유교주의적 예치의 상징으로 보궤불식을 제시하였다.<sup>9)</sup> 그는 진(秦)이 멸망한 원인을 인의(仁義)를 버리고 법치만 숭상한 것에 있다고 여겨 진나라의 잔혹한 형벌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유가적 예치(禮治)로도 충분히 질서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배경하에서 가의는 ‘보궤불식’을 언급하였는데, ‘보궤불식’의 정치적 의미와 영향에 대해 규명하기 위해서는 가의의 정치사상 중에서도 형벌에 대한 인식과 방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가의는 형벌 중에서도 그 정도가 가혹하고 엄하다거나 특히 형벌의 대상이 관료대신(官僚大臣)일 경우 그들에게 치욕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형벌을 크게 염려하고 있다. 가의의 보궤불식은 공자가 언급한 보궤불식과 유사하지만 대신(大臣)의 형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황과 설명이 부가되었다. 그 이유는 가의가 진나라가 혹형(酷刑)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서한 초기의 관료였기 때문에, 국초에 형벌의 수위와 구분에 대해 남다른 고민과 연구를 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공자의 보궤불식이 덕치에 가까운 예치의 구현을 의미한다면, 가의가 언급한 보궤불식은 법치와 상호작용하는 예치의 실행이라고 할 수 있다.<sup>10)</sup> 가의가 주장한 대신에 대한 형벌과 예치의 상호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신에게는 가혹한 형벌이 아닌 예의로써 대하고 염치를 차릴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윗사람이 예의염치를 가지고 아랫사람을 대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보답하려는 마음(腹心)이 저절로 우러나오기 때문이다.<sup>11)</sup> 이는 이미 공자를 비롯한 제자백가의 사상에서 등장하는 ‘덕(德), 인(仁), 의(義)’ 개념이므로 가의의 보궤불식의 전제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

들이 가의를 언급하면서 함께 보궤불식을 거론하고 있다. 가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김한규, 「賈誼의 정치사상-한제국 질서 확립의 사상사적 일과정」, 『역사학보』 제63집(1974); 가의 저, 박미라 역, 『신서』(소명출판, 2007).

9) 賈誼, 『新書』, 「梁太傅賈誼上疏」; 班固, 『漢書』 「賈誼傳」.

10) 박미라(2007)는 가의가 過秦論에서 법가적 정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유교이념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적 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며 그 효용가치를 인정하고 있었는데, 그 예로 가의는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일부 긍정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가의 저, 박미라 역, 앞의 책(2007).

11) 『漢書』 卷四十八, 「賈誼傳第十八」. “…… 以禮義治之者 積禮義 以刑罰治之者 積刑罰 ……”

둘째, 그럼에도 대신이 반드시 문책을 받아야만 한다면 군주가 그의 직위를 해제하거나 사형을 내릴 수는 있어도 치욕스러운 형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sup>13)</sup>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신하들의 체모를 살려줌으로써 그들의 충절을 복돋을 수 있다는 것이 가의의 주장이었다.<sup>14)</sup>

셋째, 대신의 죄목을 거론할 때에는 우회적이고 은유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죄목을 직설적으로 열거하여 관리에게 공개적으로 모욕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도였으며, 군왕이 예의염치를 가지고 대하면 대신도 보답하려는 마음이 우러나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우회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의 예로 ‘보궤불식, 유박불수, 하관부직(簾簾不飾, 帷薄不修, 下官不職)’을 인용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sup>15)</sup>

…… 옛날에는 대신이 청렴하지 못한 죄를 지어 해임될 경우에도 이를 청렴하지 못해서라고 말하지 않고 ‘**簾簾不飾(보궤를 관리하지 못했다)**’이라고 돌려 말했습니다. 남녀 관계가 문란한 경우에는 행실이 음란하다고 말하지 않고 ‘**帷簿不修(침실의 장막을 제대로 정돈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무능해서 소임을 감당하지 못한 경우에도 스스로 무능해서 파면되었다고 하지 않고 ‘**下官不職(부하가 직무를 해내지 못했다)**’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는 대신이 확실한 죄가 있다고 해도 그 죄명을 불러서 나무라지 않는 것은 (다른 쪽으로 죄명을) 바꾸어서 그를 위해 가려주는 것입니다. […] 임금이 그들을 대할 때 예의를 갖추니 여러 신하들이 스스로 기뻐하고, 염치를 차릴 수 있게 해주시니 사람들은 절개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처럼 공자 이전에 만들어진 용어인 ‘보궤불식, 유박불수, 하관부직’을 공자와 가의가 인용한 이후, 역대 중국과 조선에서는 대신의 불령, 음란,

12) 진대의 여불위는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처리하는 방법은 각각 다르다면서, 어리석은 사람을 부릴 때는 법가의 賞罰로 다루고, 현명한 사람을 부릴 때는 유가의 도덕인 義로써 한다’고 남긴 바 있다. 呂不韋, 『呂氏春秋』, 「先識」.

13) 『漢書』 卷四十八, 「賈誼傳第十八」. “…… 廉恥節禮以治君子 故有賜死而亡戮辱 ……” 치욕을 주는 벌이란 꿩꿩 묶어서 공사관에 보내는 벌, 죄수를 다루는 옥리에게 맡겨서 옥설을 퍼붓고 매질하게 하는 벌, 얼굴에 墨刑을 하는 벌, 코를 베는 벌 등이 있다.

14) 『漢書』 卷四十八, 「賈誼傳」. 이 외에도 군주가 고관에게 능욕을 준다면 이를 목격한 천민들도 고관에게 능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하귀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고, 고관은 군주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므로 군주를 위해서라도 군주의 주변에 치욕스런 형벌과 같은 불경스러운 일을 미리 멀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15) 『漢書』 卷四十八 「賈誼傳」.

무능한 죄명을 거론할 때 사용하는 예와 덕을 갖춘 관용어가 되었다. 『사고전서(四庫全書)』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문헌 성격에 따라 경부(經部)류에서 6건, 사부(史部)류에서 15건, 자부(子部)류에서 17건, 집부(集部)류에서 16건 등이 확인되었다. 시대도 춘추전국시대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인용되었는데, 당대(唐代)의 『북사(北史)』, 『백자육첩(白子六帖)』, 동한대의 『전한서(前漢書)』, 북송대의 『책부원구(冊府元龜)』, 남송대의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원대의 『운부군옥(韻府群玉)』, 명대의 『문민집(文敏集)』, 청대의 『고문아정(古文雅正)』 등 다양한 성격의 문헌에 기록되었다. 문헌 수만 보았을 때, 인용현상이 급증하는 시점은 남송대이며 이후 빈번하게 인용되었다. 이 문헌들에서는 후대에 이 용어들을 거론할 경우 원저자를 공자나 가의로 언급했는데, 이에 비해 조선시대 기록에는 가의로 언급한 경우가 더 많았다.<sup>16)</sup>

지금부터의 문제는 보궤불식에 관한 번역과 해석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탐렴(貪廉)한 관리를 비유하는 ‘보궤불식’은 ‘제사에 쓰는 용기를 간수(관리)하지 못했다’로, 남녀관계가 음란한 관리를 비유하는 ‘유박불수’는 ‘침실의 장막을 제대로 정돈하지 못했다’로, 무능하여 직책을 수행하지 못한 관리를 비유하는 ‘하관부직’은 ‘부하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했다’로 해석하였다. 여기서 유박불수와 하관부직은 본래의 뜻과 해석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만, 보궤불식의 경우는 논리성이 결여된다고 생각된다. ‘청렴하지 못한 것’과 ‘제사에 쓰는 용기를 잘 간수하지 못한 것’ 사이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불식(不飾)’을 ‘부정비(不整備)’로 해석한 것은 아마도 국가의 제사에 사용되는 제기를 정갈히 관리하지 못한 관리의 방만한 마음가짐이 탐욕스러움과 연결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몇 가지 해소되지 않는 의문이 남는다. 우선, 왜 여러 가지 제기 중 보와 궤가 선정되었는지에 관한 점이다. 주대에는 이미 청동기 제기의 구성이 완비되었기 때문에 보와 궤 외에도 다양한 반기(飯器)와 주기(酒器)가 존재했다. 보와 궤가 제기 중에서 필수적인 제기이기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다른 제기가 아닌 보와 궤가 선별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에 관해서 필자는 보와 궤에 담기는 제수의 종류와 관련이 있다고

16) 조선시대 정치적 공간에서 ‘보궤불식’을 사용한 사례들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여겨진다. 보와 궤는 제상에 진설되는 제기들 중에 곡식을 담는 반기이다(도1-2).<sup>17)</sup> 여러 종류의 음식 중에서도 곡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탐식의 의미를 상징화하는 데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탐식은 탐욕과 직결되므로, 여러 제기 중에서도 ‘보와 궤’가 불식되었다는 것은 탐욕스러움을 상징하는 기물로 적합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불식(不飾)’으로 넘어간다.<sup>18)</sup> 그동안 보궤의 장식적 성격이 간과된 채 보궤불식이 해석되어온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보궤불식의 ‘불식’이 ‘(보와 궤를, 혹은 제기를) 간수하지 못했다’라고 국역되어왔는데, 필자는 이보다는 ‘식(飾)’의 의미 그대로 ‘장식되지 않았다, 꾸미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여겨진다. 보와 궤가 갖는 장식적 성격에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와 궤는 조선시대 제사상에 올라가는 제기 중에서 장식이 중요시된 제기이다(도1-도7 참조). 조선시대 왕실의 종묘제례에는 곡식과 생고기 등을 바치는 제사상이 차려지고, 그 앞에 술상인 준소상이 놓인다. 제사상과 준소상에 올려진 제기 장식의 성격이 다르다. 제사상의 여러 제기들 중 보와 궤는 가장 정교하고 조밀한 장식으로 꾸며졌다.<sup>19)</sup> 제사상의

17) 제수의 종류와 양은 시대와 제사의 성격에 따라서 가감되는데, 국립고궁박물관소장의 <종묘친제규제도설병풍>의 6쪽에 그려진 <五享親祭設饌圖>를 기준으로 제기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제수는 다음과 같다. 爵은 6기(물과 술), 牲匣은 5기(날고기와 삶은 고기), 簠와 簋는 4기(날곡식), 籩는 12기(마른제수), 豆는 12기(물기 있는 제수), 鬯은 6기(간을 하지 않은 고깃국), 鬪은 6기(간을 한 고깃국)이다. 이 외에 보와 궤가 제기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를 증명할 정확한 문헌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18) 공자와 가의의 원전에는 보궤불식으로 명기되어 있고 한중의 역사기록물에서도 대부분 보궤불식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한대 이후의 문헌들 중에서는 簠簋不飾, 簠簋不修라는 용어도 등장한다. ‘修’字와 ‘飾’字는 ‘갖추다, 정비하다, 손보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보궤를 정비하지 못했다’라는 기존의 해석 역시 타당할 면이 있다. 또한 ‘飾’자도 ‘꾸미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수선하다 청소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중국 학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나, 일반적으로 ‘不整備’로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자와 가의의 원전에 충실하고 실제 현전하는 보궤의 물질적 특성을 파악한다면 공자와 가의가 인용한 시대의 보궤불식은 ‘不裝飾以饜饕龜文’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후대에 飾에서 飾 혹은 修로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원론적인 논의는 공자의 文에 대한 의견과 공자를 전후한 시기의 文飾의 변화과정에 대해서 논해야 하지만, 지면관계상 이는 후속 논문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19) 중국의 상대-한대의 청동제 제기의 표면은 대부분 장식적인 양각장식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후 제기 장식에 대한 관념이 변화하여 제사상에 오르는 제기들은 보, 궤, 두, 작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문으로 변화하였고, 준소상의 제기들의 장식은 특정 도안으로 압축되었다. 이는 성리학의 飾에 대한 관념과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요구된다.

다른 제기들(爵, 豆, 登, 銅)에도 간혹 부분적으로 문양이 장식된 경우도 있지만, 전체가 아닌 띠 형태로 외면의 일부만 장식된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준소상의 제기들은 각 방위와 계절을 상징하는 닭, 봉황, 버, 소, 코끼리 등으로 장식되었다. 이렇듯 제사상과 준소상의 제기들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장식(飾)되거나 장식되지 않았다(不飾)(표1).

표1-조선시대 제의에 사용된 제기의 문양 종류와 특징

상	종류	문양의 종류와 상징			
		문양과 상징(예서와 기존 연구)	제기 문양의 특징 (필자 의견)		
제사상	작	뇌문, 기하학문	제사상에 오르는 제기의 문양의 의미에 대해 별도의 자세한 언급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박과 절검을 숭상한 고대 예제를 따라 문양을 절제함.</li> <li>• 유독 보궤에서 문양의 종류가 다양하고 조밀함.</li> <li>• 제기의 鬼面文(獸面文)중 일부를 饕餮文으로 재해석(戒貪食을 상징) / 제기의 龜象(혹은 龜甲文)의 의미를 새롭게 주목(小食을 상징)</li> </ul>	
	조	무문			
	보	수면문, 수피문, 뇌문 등			
	궤	수면문, 수피문, 뇌문 등			
	변	무문			
	두	무문 혹은 복합문			
	등	무문 혹은 未詳문			
	형	무문 혹은 未詳문			
	희갑	무문			
	모혈반	무문			
준소상	이	계이	닭문	동방, 인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위, 절기 등을 상징하는 상징물들로 장식하여 기형과 문양의 상관관계와 목적성이 뚜렷함.</li> </ul>
		조이	봉황문	남방, 예 여름	
		가이	벼이삭문	곡식, 가을	
		황이	황금눈	청명한 기운 겨울	
	준	상준	소의 형상	봄, 여름	
		희준	코끼리 형상	봄, 여름	
		착준	기하학문	양기발산	
		호준	기하학문	음기발산	
	산뢰		산문		
		뇌문	인군의 은혜가 여러 신하에게 미치게 함.		

즉, 계절마다 명수와 각종 술을 나눠 담는 준소상 제기들은 장식문양(飾)을 통해 쓰임을 구분하였고, 각종 제수를 담는 제사상의 제기들은 불식(不飾)하여 질박함을 숭상하였다. 다만 제사상의 제기 중에서 유달리 장식이 강조된 기물이 바로 보와 궤이다. 이는 보와 궤가 반드시 '식(飾)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보와 궤는 반드시 '식(飾)되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보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문양을 장식하였는가? 그리고 이 문양을 장식하지 않은 것(不飾)이 왜 탐오(貪汚)한 관리를 지칭하는 정치적 용어가 되었을까? 영킨 신타래와 같은 이 문제는 IV장에서 현전하는 보와 궤의 기형과 예서 속 도설들을 비교하면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짚어볼 내용이 있는데, 조선시대에 사용된 보궤불식의 성격에 대해 분석하고 보궤불식이 국내에서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 III. 조선시대 보궤불식의 정치적 인용과 번역

조선시대 보와 궤의 장식을 분석하기에 앞서, 과연 보궤불식이 조선시대 동안 정치용어로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관해 문헌을 통해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보궤불식을 당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였는지, 보궤불식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분화되었는지, 보와 궤 그리고 장식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당대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보궤불식이 어떻게 번역되는지에 관해서 살펴보겠다.

조선시대 기록 중 보궤불식이란 용어가 주로 등장하는 종류는 왕실 관찬서류로 비교적 다양한 상황에서 인용되고 있다(표2).<sup>20)</sup> 조선시대

20) 『조선왕조실록』은 簠簋不飾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헌인데, 보궤불식 외에도 ‘簠簋不飾, 簠簋不修, 簠簋之謂’도 간혹 혼용되었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에서 ‘보궤불식’이 등장하는 시기별 차이도 흥미로운 부분인데, 문종 1회, 성종 대 10회, 중종 대 2회, 선조 대 1회, 광해군 대 1회, 인조 대 2회, 숙종 대 4회, 영조 대 6회, 정조 대 5회, 고종 대 1회 순이다. 성종·숙종·영조·정조 대에 보궤불식을 인용한 사례가 높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왕의 재위기간과 상관 있겠지만, 유교적 통치체제가 확립되고 재건되는 시점과 일치한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표2의 ‘簠簋不飾’의 현대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DB에서 제공된 기사별 보궤불식에 대한 설명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표2가 장황함에도 불구하고 각 왕별로 보궤불식을 인용한 사례를 모두 열거한

왕과 관리들은 예와 격을 갖춘 정치용어로서 보궤불식을 협의(狹義)와 광의(廣義)로 폭넓게 사용하였다. 청렴하지 못한 관리를 칭하는 은유적인 죄명이 협의에 해당한다면, 광의는 군신(君臣)간 그리고 신하들 간에 서로 예를 갖추어 정치를 펴는 예치라고 할 수 있다. 문종 대부터 고종 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보궤불식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논거로 활용되었는데, 이를 분석해보면 크게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표2- 조선시대 관찬기록에서 보궤불식을 인용한 사례와 번역의 문제

기사연도	기사 내용	번역문	簠簋不飾의 현대 번역
문종 1452. 2. 8	황희가 정권을 오래 잡은 것에 대해 世評을 거론하면서 인용(朝)	…… 청렴결백한 지조가 모자라서 정권을 오랫동안 잡고 있었으므로, 자못 簠簋之諍는 비난이 있었다. ……	-
1471. 6. 8	절치를 갖추지 못한 관료에게 녹을 주지 않는 것은 예우가 아니라면서 인용(朝)	…… 예전의 大夫는 그가 청렴하지 못하고 더러운 데에 연좌됨이 있는 자는 不廉汚穢라 이르지 않고 簠簋不飾이라 말하였고……	제기가 깨끗하지 못하다.
1471. 7. 28	김국광의 처벌을 간하는 金壽寧이 상소문에서 인용(朝)	…… 지위의 높음이 지극한데 삼가고 申飭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여 簠簋不飾의 비난이 날로 더 높고 퍼졌습니다. ……	제사 그릇을 더럽히다.
1473. 7. 30	부제학 이극기가 사치스러운 습속을 바로잡자고 상소하면서 인용(朝)	…… 남에게 取辦하도록 하는 데에 이르니, 簠簋之諍를 사양하지 않는 바가 있습니다. *** 簠簋之諍로 기록됨 ***	제사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다.
성종 1474. 8. 21	왕실관부와 관료들이 죄는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서 인용(朝)	…… 이제 대신이 죄가 있으면 指斥하지 아니하고, ‘簠簋不飾’이라느니, ‘帷薄不修’라느니 하는데……	제기가 불결하다.
1477. 10. 4	양성지가 재회를 탐하는 것을 비난하면서 인용(朝)	…… 이조판서가 되었을 때 그 門前이 저자와 같아서 簠簋不飾 비난이 있었습니다. ……	제기를 더럽히다.
1477. 10. 12	양성지의 탐오를 이뤄자 성종이 하답하면서 인용(朝)	…… 임금이 말하기를, 簠簋不飾의 惡名이 큰 자일 것 같으면……	-
1478. 12. 17	예조참판 김유가 대신들의 죄를 가중해 처리한 부당함에 상소하면서 인용(朝)	…… 예전에는 대신 중에 臟汚를 범한 자가 있으면 임금이 꾸짖기를, 簠簋不飾이라 하고……	-

이유는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들을 최대한 제시하는 것이 대표적인 몇몇 사례를 임의로 추출하는 것보다 객관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기사연도	기사 내용	번역문	簠簋不飾의 현대 번역	
1486. 7. 22	죄를 진 대신의 자손에게도 벼슬길을 터주어야 한다면서 인용(朝)	…… 예전에는 대신이 不廉에 坐罪 되는 일이 있어도 불렴이라 하지 않고 簠簋不修라고 하였습니다. …… *** 簠簋不修로 기록됨 ***	제기가 불결하다.	
	대신을 논핵함에 있어서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면서 인용(朝)	…… 옛날의 大臣을 論劾한 사람은 혹은 簠簋不飾이라고 하면서 그 죄를 명백히 말하지 아니했는데……	제기가 불결하다.	
	유생들이 수상을 대한 불경한 언사에 대해 성중이 그들을 추핵하고자 인용(朝)	…… 옛날에는 대신이 비록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 드러내어 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簠簋不飾, 帷薄不修’라고 하였는데……	제기가 불결하다.	
중증	1511. 12. 2	근래에 대신의 작은 과실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예에 맞지 않는다면서 인용(朝)	…… 옛적에 대신이 청렴하지 못하여 죄를 줄 때는 [...] 簠簋不修라 하였는데, 근래엔 대신에게 죄가 있으면 속바칠 것을 명하다. …… *** 簠簋不修로 기록됨 ***	보개가 정돈되지 못했다.
	1531. 3. 27	죄찬성 이항이 자신의 죄로 인해 보케불식의 미덕이 무너지는 것을 죄스러워하면서 인용(朝)	…… 청렴치 못했다고 하지 않고 簠簋不飾이라 하여 [...] 대신을 예로 대우하던 아름다운 뜻이 [...] 무너지게 되었음을 더욱 스스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	-
선조	1597. 5. 9	고관에 올랐어도 청렴하지 못하여 문사들이 하찮게 여겼다면서 인용(朝)	…… 영의정 柳成龍, 판중추부사 尹斗壽는 [...] 벼슬이 정승에 올랐으면서도 簠簋不飾하여 士論들이 하찮게 여겼다. ……	보개가 정돈되지 못했다.
광해군	1609. 1. 3	知事 盧穰이 불렴하므로 파직하라고 상소하면서 인용(朝)	…… 知事 盧穰은 簠簋不飾 비난이 떠들썩하게 전파된 지 이미 오래이니……	보개를 수식하지 않았다.
인조	1644. 11. 18	이경중이 뇌물을 받았는지 논하면서 인용(朝)	…… 지위 높은 신하가 청렴치 못한 죄에 걸릴 경우 [...] ‘簠簋不飾’은 은어를 썼으니……	보개가 정돈되지 못했다.
	1644. 3. 27	심기원의 죄가 극악하므로 공개처형해야 한다면서 인용(承)	…… 옛날에 대신에게 죄가 있을 경우 淸室에서 죽음을 내렸던 것은 簠簋不飾하고, 下官不職한 것과 같은 종류입니다. ……	보개를 잘 덮지 않았다
숙종	1688. 4. 25	대신들이 李選을 引避하면서 인용(朝)	…… 집에 있어서는 簠簋不飾한 것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있으니……	보개를 더럽히다.
	1699. 12. 22	吏曹判書 申琬의 削去仕版을 논하면서 인용(朝)	…… 簠簋不飾에 輿情이 모두 울분을 품고……	제기가 정돈되지 못하였다.
	1704. 6. 20	각박한 근래의 풍습을 순박했던 옛 풍습과 비교하면서 인용(朝)	…… 옛사람들은 사람을 논할 때 말이 각박하고 극심하지 않아서 [...] ‘帷薄不修’라 하고, 혹은 ‘簠簋不飾’이라고 하였는데……	제기가 불결하다.

기사연도	기사 내용	번역문	簠簋不飾의 현대 번역
1719. 1. 29	영의정 김창집이 백관들이 청렴하지 못한 폐해에 대해 차지를 올리면서 인용(朝)	…… 中外에서 簠簋不飾의 책망이 날로 심해지고 극성해지고 있으니……	제기가 불결하다.
1747. 7. 23	영조의 하교가 지나쳤음을 아뢰면서 인용(朝)	…… 貪汚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簠簋不飾이라고 말하며……	제기가 불결하다.
1754. 12. 1	이기, 이량 등이 사용한 비유가 합당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인용(朝)	…… 임금을 바꿀 만하였다는 등의 말에 대해 [...] 簠簋不飾의 의리로 논하면 어찌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기가 불결하다.
1758. 8. 14	우의정 申晩의 상소에 대한 비담 중 인용(朝)	…… 보례불식한 뜻을 본받아서, 재상의 관직이라 일컬으면서 일을 처리하는도다. ……	제기가 불결하다.
1767. 5. 18	강화유수 이은 등을 비난하는 상소에 대해 영조가 인용(朝)	…… 옛날 사람이 簠簋不飾이라는 말을 하였는데, 어찌하여 이토록 각박한 말을 하는가……	-
1768. 1. 17	金善의 불령에 관한 상소가 지나치다면서 인용(朝)	…… 이 상소는 보례불식의 비방에 크게 부족하다. ……	제기가 불결하다.
1774. 10. 7	영조가 李重馥의 상소를 듣고 하문하면서 인용(朝)	…… 임금이 말하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簠簋不飾이라 하였는데……	
1778. 4. 8	탐오한 李堧에 대해 李在學이 상소하면서 인용(朝)	…… 臣이 옛사람들의 簠簋不飾의 의리에 따라 [...] 索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미는……	제기가 불결하다.
1778. 8. 25	정조가 장지항 등의 죄에 대해 신중히 살펴서 재심문 하라고 명하면서 인용(日)	…… 그가 비록 보잘것없는 자이기는 하지만 [...] 簠簋不飾 차원에서 杖刑으로 위협하는 등의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	제기가 정돈되지 않았다.
1778. 10. 10	정조가 상의원 제조 흥낙성을 체직하면서 인용(日)	…… 비록 簠簋不飾의 의리에 따라 끝까지 다 말하고 싶지는 않으니……	-
1779. 1. 3	정조가 한민유가 피험하여 체직을 청한 데 허락하면서 인용(日)	…… 재물만을 귀하게 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보례불식하는 예에 따라 이런 행태는 참으로 깊이 책할 것이 없습니다. ……	제기를 꾸미지 않았다.
1780. 7. 19	李秉鼎의 죄에 대해 김이희가 아뢰면서 인용(日)	…… 이것은 거의 簠簋不飾과 같습니다. 그가 수령에게 술을 요구한 글에……	제기가 정돈되지 않았다.
1886. 2. 18	고종 1886. 2. 18 죄승지 이승소가 직명을 체직해주기를 청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인용(承)	…… 겉으로는 簠簋不飾의 의리와 같이 하여 비록 직접 신에게 '청렴하지 못했다'는 죄목을 씌우지는 않았지만……	제기를 정돈하지 못했다

기록의 출처는 기사 내용에 명시함. (朝)는 『조선왕조실록』, (承)은 『승정원일기』, (日)은 『일성록』을 의미함.

첫째, 본래의 뜻대로 탐오한 관리의 죄를 완곡하게 견책하는 관례적 용어로 인용되었다. 영의정부사 황희의 졸기 중에서 ‘**청렴결백한 지조가 모자라서 정권을 오랫동안 잡고 있었으므로, 자못 청렴하지 못하다는 비난이 있었다**’는 세간의 평<sup>21)</sup>, 사간원 대사간 김수녕이 김국광의 처벌을 간하면서 열거한 죄목<sup>22)</sup>, 장령 김제신이 대사헌 양성지에 대해 ‘**오로지 재화만을 탐하였으므로 일찍이 이조판서가 되었을 때 그 문전이 저잣거리와 같아서 자못 보케불식의 비난이 있었습니**다’라고 차자(箴子)를 올린 것 등<sup>23)</sup> 여러 사례가 있다. 특히 상소문에서 보케불식을 인용하고 있는데, 대신의 죄목을 구체적으로 지적(指斥)하고 색언(索言)하는 것은 박절하다고 여긴 까닭에 보케불식을 사용하는 것은 조정의 미풍을 상징하였다.<sup>24)</sup>

둘째, 형벌의 수위를 조절해야 할 명분으로서 인용되었다. 보케불식은 탐오를 견책하고 은유하는 정치적 용어에서, 실제로 형벌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용어로까지 진화되었던 것이다. 보케불식이 형벌의 수위와 종류를 가감하는 논거로 활용되면서 계급과 신분의 구분이 더욱 중요해졌다. 예를 들어 설경 유돈이 근래 대신의 죄에 대해 돈으로 면피토록 하는 구체책인 속바치는(贖) 것을 요구한다면서, **대저 속바치기란 서리나 미관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인데, 서리나 미관에 베푸는 것으로써 대신을 대우함은 대신을 높여 예우하는 뜻이 전혀 없다**’고 아뢰고 있다. 유돈은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명분으로 대신에게 적합한 형벌은 보케불식과 같은 예우를 갖추어야 한다고 인용하였다.<sup>25)</sup> 지배계층이라고 하더라도 보케불식과 같은 예우는 말단관직이 아닌 고관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종류이며, 면죄의 대가로 조정에 돈을 바치게끔 하는 속바치기를 대신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심리적 반발을 가졌던 당대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예로는 장죄(贓罪) 등의 죄목으로 인하여 중형(重刑)에 처해진 대신(金孟規, 申澣 등)들의 지손들이 부시(赴試)에 응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사헌부 대사헌 이경동(李瓊叟) 등의 상소에 반박하는 홍응(洪應)의 주장을 들 수 있다. 홍응은 장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그 경중(輕重)을 논하지 않고 한결같이 죄를 빠뜨려서는 안 되며, 『경국대전』에 ‘**인신을**

21) 『朝鮮王朝實錄』, 1452년(문종 2), 2월 8일 기사.

22) 『朝鮮王朝實錄』, 1471년(성종 2), 7월 28일 기사.

23) 『朝鮮王朝實錄』, 1477년(성종 8), 10월 4일 기사.

24) 『朝鮮王朝實錄』, 1778년(정조 2), 4월 8일 기사.

25) 『朝鮮王朝實錄』, 1511년(중종 6), 12월 2일 기사.

위조한 자는 처자를 영속한다'라고 한 것은 보통 백성을 위한 법인 것이지 대신에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궐불수의 전례에 따라서 대부 반열에 올랐던 자에게 소민(小民)을 대우하는 법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성종은 신정의 아들에게는 특별히 과거 응시를 허가하였다.<sup>26)</sup>

이처럼 보궐불식이 인용될 때의 형벌의 수위는 대부분 완화되는 것이지만, 때로는 가중될 수도 있었다. 예를 들어 중종 대에 성균관 유생들이 올린 상소문에 영의정 윤필상(尹弼商)을 가리켜 '간교한 귀신(奸鬼)'이라고 하여 중종이 유생들을 국문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러 대신이 유생들의 석방을 청하였다.<sup>27)</sup> 하지만 중종은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풍습이 습관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대신이 비록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감히 드러내지 않고 '보궐불식, 유박불수'라고 한 옛날의 미풍을 근거로 들면서 끝까지 유생들을 추책하여 죄를 다스릴 뜻을 밝히고 있다.<sup>28)</sup> 이와 같은 경우는 고관에게 실례를 범한 자를 엄징하면서, 동시에 위계질서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서 형벌이 가중된 사례이다.

보궐불식에 의거한 형벌 수위의 가감은 뇌물죄에 대한 조선의 사회적 인식과도 연결된다. 조선시대 형벌은 법전을 토대로 태·장·도·류·사의 5형을 사용하였다.<sup>29)</sup> 이와 같은 형벌이 신체적 형벌이라면, 보궐불식

26) 『朝鮮王朝實錄』, 1486년(성종 17), 7월 22일 기사. 숙종 대의 檢討官 李晚堅은 보궐불식의 순박한 풍속이 사라지고, 참각한 논의가 滔滔하여 사람을 논할 때 그 사람의 평생을 결판내고 심지어 그 죄의 여파가 父兄에게까지 미치게 되니 매우 나쁘다고 개탄하고 있다. 이렇듯 보궐불식은 죄를 연좌시키는 가혹한 형벌에 대한 상치되는 고대의 淳龐한 풍습을 상징한다. 『朝鮮王朝實錄』, 1704년(숙종 39) 6월 20일. 보궐불식의 논리는 더 나아가 뇌물을 저지른 대신에게 오히려 상을 내린 한나라 문제와 당나라 태종의 고사와 비견되기도 하였다. 『朝鮮王朝實錄』, 1478년(성종 9), 12월 7일 기사. 성종이 이계손, 이봉 등의 죄를 가중시키자 예조참관 김유는 '廉恥가 흥기하고 節義가 행해졌기 때문에 漢과 唐이 풍속을 유지하여 장구한 치안을 이루게 되었고, 문제나 태종과 같은 말세의 보통 임금도 이렇게 하였는데, 성종의 거룩함이 요순에 견줄 수 없이 높음에도 德禮를 앞세우지 않으시냐'는 궤변에 가까운 논리를 내세웠다. 이는 심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비약을 가능하게 한 것도 역시 보궐불식이 고전 어구로서 갖는 권위라고 할 수 있다.

27) 『朝鮮王朝實錄』, 1429년(성종 23), 12월 4일 기사.

28) 『朝鮮王朝實錄』, 1492년(성종 23), 12월 5일 기사.

29) 그동안 학계에서 조선시대 형벌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신체에 고통을 가하여 벌을 주는 신체적 형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태형이 가장 가볍고 사형이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다(심재우, 「조선시대 능지처사형 집행의 실상과 그 특징」, 『사회와 역사』 90, 2011, 150쪽). 보궐불식의 원리에 따르면 불가한 것이지만, 조선의 실정법에서는



과 같은 죄명은 심리적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sup>30)</sup> 사가(士家), 즉 지식인층에 대한 치죄는 죄를 묻되 욱됨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였는데 신체적 형벌로는 유배와 사형이 이에 해당한다. 심리적 형벌은 염치(廉恥)를 스스로 일깨움으로써 외부로부터의 비난과 능욕은 당하지 않도록 하면서 심리적으로 깨우치도록 하였다.<sup>31)</sup>

‘보케불식’은 『공자가어』를 통해 유가적 문자로서의 권한을 공인받았고, 가의에 의해 예치적 형벌로 발전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배경으로 조선시대 대신의 형벌을 논할 때 자주 인용되는 정치적 관용구가 되기에 충분했다. 양형을 정할 때의 관용어구로 인용되는 보케불식은 상하귀천의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지배계급의 본성과 지배계급 내에서도 고관대신과 미관말직을 엄밀히 구분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된 용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신하가 인군의 예치를 청하거나 혹은 임금 자식이 인군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정치적 언어 도구로 인용되었다. 이 경우에는 각각의 상황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와 다양한 맥락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성종 대 한치형은 상소문에서 관리의 녹을 지체하는 것은 대신을 예우하는 데 어긋난다면서 보케불식을 인용하였다.<sup>32)</sup> 이러한 주장이 나온 전체적인 맥락은 당시 각사의 관리가 녹을 받을 때 해유(解由)를 상고하여야만 녹을 지급하는 절차로 인해 성실히 근무하였더라도 두곡(斗斛)을 받지 못한 관리가 발생하니, 이는 현사(賢士)와 대부(大夫)를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두곡의 곡식으로 사대부를 조종하고 권정하는 방법으로 삼는 것은 옛날의 염치로써 선비를 대접하는 도리가**

---

대신들도 5형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경우는 없었다. 법전에 근거한 신체적 형벌뿐만 아니라 심리적 형벌(廉恥)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30) 사형은 임금이 내려주는 약인 사약을 받는 일종의 명예형이었다. 사약은 주로 왕실의 종친이나 관리들의 사형제도인데, 『禮記』 가운데 ‘士家殺不可辱’하는 데 근거하여 스스로 명예롭게 죽음을 선택하게 하는 형벌이다. 사형 중에서 사약은 부모에게 받은 육체를 온전히 보전하는 효를 지킬 수 있다는 면에서 중요했다. 심제우, 위의 논문, 113쪽.

31) 특히 대신들의 贓汚罪는 다른 죄목보다는 형벌이 무겁지 않았다. 이는 보케불식이라는 고전적 전거를 활용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부도덕한 행위일 뿐 나라의 체제를 변동시키려는 역모와 같은 정치적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공자가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예시한 죄목인 탐오, 음란, 무능은 개인적인 문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역으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죄는 비록 고관대신이라고 할지라도 극형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32) 『朝鮮王朝實錄』, 1471년(성종 2), 6월 8일 기사.

아니므로 해유의 법을 폐지하여야 하고, 군주는 '마땅히 예의로 아랫사람을 우대하여 염치의 풍속을 배양해야 한다(要當禮義遇下 以培養廉恥之俗)'는 것이 한치형의 주장이었다. 여기서 인용된 보궤불식은 인군의 예치를 상징한다. 인용하는 문장은 공자와 염유의 대화였지만, 보궤불식의 본뜻보다는 보궤불식을 사용하는 군신의 관계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sup>33)</sup> 또 선조는 인군이 대신을 대우하는 도리에 대해 '(인군은 대신에게) 탐오라 하지 않고 보궤불식이라 하였고, 형륙(刑戮)을 가하지 않고 사사(賜死)만을 명하였다'라고 인용하면서 대신에게 문책하지 않는 인군의 면모를 드러내려 했다.<sup>34)</sup> 영조 대에는 임상원(林象元)이 전날의 성상의 하교는 지나쳤다고 간하면서 보궤불식을 예로 들자, 영조는 '지금 유신(儒臣)의 진달을 듣고 문득 중도에 지나쳤음을 깨닫게 되었다 [...] 지금 나의 귀를 열게 하였으니, 가장히 여기는 뜻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표리(表裏) 1습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이는 보궤불식을 통해 실질적 형량을 가감한다는 차원보다는 인군의 예치를 스스로 드러내고자 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해석된다.<sup>35)</sup>

조선시대에 보궤불식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 용어로 사용되었다. 장오한 관리를 견책하는 은유적인 표현에서 진화하여 형량을 결정할 때의 고전적 전거로 활용되기도 하고, 임금과 신하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논거로 인용하기도 하였다. 이상이 보궤불식의 정치언어적인 특성이며, 다음 장에서는 보궤불식의 물질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sup>36)</sup> 즉, 보궤불식의 '식(飾)'이 가리키는 구체적인 문양의 종류를 밝히고 이 문양으로 장식하지 않은 것이 왜 불렴(不廉)을 상징하게 되었는지에 관해 살펴보겠다.

33) 『朝鮮王朝實錄』, 1471년(성종 2), 6월 8일 기사.

34) 『朝鮮王朝實錄』, 1604년(선조 37) 12월 11일 기사.

35) 『朝鮮王朝實錄』, 1747년(영조 23), 7월 23일 기사.

36) 보궤불식이란 정치적 용어와 보궤의 장식은 일견 일맥상통하는 주제가 아닌 별개의 문제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근대적 기준으로 본다면 마치 한문학, 역사학, 미술사학의 연구주제가 혼합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조선시대에 보궤불식이란 문구가 다양하게 사용되던 상황이 파악된 이상 도대체 '飾'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선의 지식인들이 '不飾'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불식이 왜 不廉과 同意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추적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작업이므로 근대적 학문의 경계를 넘어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IV. 보례불식의 진의(眞意)-보례에 장식된 도철문과 거북문

앞에서 살펴본 대로 보와 궤는 제사상에 오르는 제기 중에서도 특히 장식이 중시된 기물이다. 보와 궤가 장식되었는가(飾) 혹은 장식되지 않았는가(不飾)는 중요한 문제이다. 앞서 논의했듯이 보례불식이 사자성어로 만들어져 중국과 조선의 정치현장에서 꾸준히 사용된 만큼 ‘식(飾)’, 즉 문양의 구체적인 종류와 의미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sup>37)</sup> 필자는 중국 고대시대에 제작된 청동제(靑銅製) 보와 궤 및 송-청대의 예서 그리고 조선시대의 유동제(鎭銅製), 자기제(磁器製) 보례와 각종 예서 및 의궤 등을 분석해보았다.

중국과 조선의 보는 일반적으로 네모진 기신(器身)과 개(蓋)로 이루어져 있는데, 외면에 뇌문(雷文) 등 기하학문이 장식되어 있고 기신의 상단 중앙에 수면상(獸面像)이 부착되어 있다(도2-1, 도4-1, 도6-1). 전체에서 차지하는 수면상의 면적은 작지만 그릇 정면 중앙의 핵심 공간에 위치한다는 점과 입체적인 형태를 띤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보에 부착된 수면상의 종류는 용, 소, 시슴 등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수면문(獸面文)으로 파악되고 있고, 소나 시슴 등은 희생(犧牲)로 보아 희생(犧首)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sup>38)</sup> 그중에 일반적인 동물의 형태나 희생의 얼굴모양에 포함되지 않는 일군(一群)의 수면상들이 있어 주목된다(도2-2, 도4-2, 도6-2). 중국 명대 전례서인 『대명집례(大明集禮)』나 조선시대 의궤 중 일부에서 확인되는 이 수면상은 일반적인 짐승의 형태와 거리가 있는 특수한 유형이라 여겨진다. 이 수면상은 정면을 향해 부릅뜬 큰 눈, 양옆으로 솟은 뿔(귀), 풍성한 털 등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수면상이 현전하는 조선시대 유기제 보 중에서도 존재하여, 도설을 기반으로 제작

37) 조선의 당대인들이 ‘보례불식’에 대해 ‘무엇을 불식하였는지 구체적인 관심을 둔 기록은 매우 희소하며, 대부분 이미 관례화된 관용구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송-명대의 예서들을 참고하여 제작된 조선의 예서 중에서 보와 궤에 장식된 문양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매우 적다. 즉, 보와 궤의 문양이 갖는 의미나 ‘飾’의 구체적인 의미가 당시에 심도 있게 인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8) 보에 부착된 獸面像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보에 器身에 부착되고 궤의 다리에 그려진 문양에 대해서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獸面, 怪獸로 언급하고 있다. 김종임, 앞의 논문(2009); 하은미, 앞의 논문(2010). 김종임은 본고에서 언급하려고 하는 보례의 특수한 수면문을 묶어 ‘대명집례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39)</sup>

궤 중에서도 수면상으로 장식된 기물이 존재한다. 보의 수면상이 주로 기신의 중앙에 부착된 부조장식 이었던 것과 달리, 궤의 수면상은 아래 쪽 굽 외면에 음각으로 장식되었다(도3-1, 도5-1, 도7-1). 음각기법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보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표현되었는데, 그중에서도 보에서 나타난 수면상과 외형적 특징이 유사한 수면상들이 확인된다(도3-2, 도5-2, 도7-2). 이러한 수면상은 현전하는 조선시대 유기제 궤의 굽에서도 유사한 형상을 확인할 수 있어 도설 속 수면상이 실제로 제작에 충실히 반영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sup>40)</sup> 또 현전하는 조선시대 유동제 궤의 수면상 중에는 양 방향의 털들만 남아 있는 수면상이 있는데, 그 이유는 낫쇠의 녹을 제거하기 위해 닦아서 관리했기 때문에 수면문의 얼굴 부분이 닳아 없어졌기 때문이다. 비록 수면상의 일부만 잔존하였지만, 이 형태의 경우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의 보에 장식된 도철문과의 조형적 친연성이 강하여 원형을 짐작해볼 수 있다(도6-2, 도7-2).

중국의 『대명집례』, 『소희주현석전의도(紹熙州縣釋奠儀圖)』나 조선의 『사직종묘문묘제기도감의궤(社稷宗廟文廟祭器都監儀軌)』, 『종묘의궤(宗廟儀軌)』,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 『경모궁의궤』 등 여러 문헌들에서도 확인되는 미명의 특정한 수면상들은 조형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여러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표3). 그리고 현전하는 유물들을 통해 실제로 이 도설들을 참고로 하여 제작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수면상의 정체와 장식 목적은 무엇일까? 여기서 중국 고대 청동기 제기의 도철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도철은 중국 변경의 서쪽에 사는 진운(緄雲氏)의 자손으로 신이경(神異經)에 설명된 사흉(四凶: 渾沌, 檮杌, 窮奇, 饕餮) 중 하나이다. 도철의 ‘도(饕)’는 재산을 탐한다는 의미가 있고, ‘철(餮)’은 음식을 탐한다는 의미가 있다. 도철은 왕성하고 탐욕스러운 식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씨춘추(呂氏春秋)』 「선식람(先識覽)」에서는 제기의 도철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39) 김종임, 위의 논문(2009), 56-57쪽. <표26. 파수 형태별 분류> 중 ‘세밀 용형, 대명집례형’이 이에 해당.

40) 김종임, 위의 논문(2009), 71-73쪽. <표36. 굽의 형태별 분류> 중 ‘괴수문 기형, 괴수문 음각문, 음각문, 대명집례주조굽’이 이에 해당.



도2-1-보, 『대명집례』, 명



도2-2-보의 수면상(도철문 추정, 필자 의견)



도3-1-궤, 『대명집례』, 명



도3-2-궤의 수면상(도철문 추정, 필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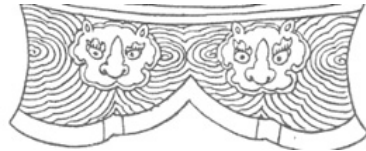
도4-1-보, 『사직서의궤』(1783), 조선



도4-2-보의 수면상(도철문 추정, 필자 의견)



도5-1-궤, 『사직서의궤』(1783), 조선



도5-2-궤의 수면상(도철문 추정, 필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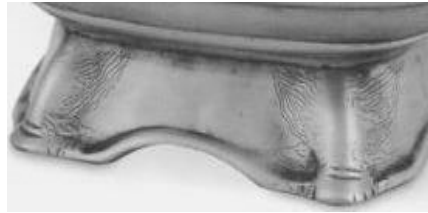
도6-1-보, 『경모궁 의궤』(1784),  
조선



도6-2-보의 수면상(도철문 추정, 필자 의견)



도7-1-궤, 높이 20.5cm, 국립고  
궁박물관



도7-2-궤의 수면상(도철문 추정, 필자 의견),  
문양이 닳아서 털 부분만 남아 있는 상태



도8-1-鼎, 高 21.3cm, 西周,  
중국 상해박물관



도8-2-정의 도철문

주나라의 鼎에는 도철을 새겨 넣었는데 머리는 있으나 몸은 없고 사람을 잡아먹는데 아직 삼키지 못한 형상이었다. (남에게 위해를 가하면) 피해가 자신의 몸에 미치는 것을 (표현하여) 報應이 따른다고 말하고자 한 것이다.<sup>41)</sup>

위 내용을 통해 남에게 피해를 주면 그 화(禍)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려 악행을 경계하려는 의도로 청동 정에 도철문을 새겨 넣은 것을 알 수 있다(도8). 위와 같은 명확한 문헌적 근거 덕분에 중국 청동제

41) 『呂氏春秋』, 『先識覽』. “…… 周鼎著饕餮 有首無身 食人未咽 害及其身 以言報更也.”

정에 새긴 짐승문이 도철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의 몸까지 먹어버려 얼굴만 남고 몸은 사라진 모습의 도철문을 제기에 장식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지나친 탐식(탐욕)을 경계토록 한 것이다. 이처럼 『여씨춘추』 「선식람」 편을 통해 제기에 장식된 문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42)</sup>

정(鼎)에 도철문을 장식한 목적과 그 형태에 대한 『여씨춘추』의 내용이 중국과 조선의 다양한 문헌에서 인용되었다. 조선의 식자층들이 도철을 탐식과 탐욕의 악수(惡獸)로 인식한 사실도 여러 문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의 여러 문헌에서 도철은 ‘도철음식(饕餮飲食)<sup>43)</sup>하다거나, 도철이 용의 아홉 자식 중 여섯 번째 자식으로 ‘호음(好飲)하여 정(鼎)의 덮개에 조각하였다’는 내용도 확인된다.<sup>44)</sup>

일반적인 도철문의 형태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자. 『산해경(山海經)』에는 ‘양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 눈은 겨드랑이 밑에 붙어 있고 호랑이 이빨에 손톱을 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곽박은 주(住)를 달아 ‘성질이 탐욕스러워 사람을 잡아먹고도 만족지 못하여 자신의 몸을 물어뜯는다. 그 모습이 한나라 정(鼎)에 새겨져 있다’고 하였다.<sup>45)</sup> 또한 여러 문헌에서 도철은 ‘털이 많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이를 통해 도철문은 ‘정면향의 얼굴, 부릅뜬 눈, 눈썹, 위로 말린 큰 뿔, 송곳니, 많은 털’ 등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데, 반드시 이 형태로만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기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sup>46)</sup>

중국 상주시대 정(鼎)의 도철문은 넓직한 사각 평면에 얇은 부조와 음각으로 장식되었는데, 위에서 언급한 도철의 도상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42) 송나라의 금석학자들도 청동 식기에 새겨진 도철문의 형상을 ‘후세의 귀감’이면서 ‘탐욕을 경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다. 왕린상 저, 주영하 역, 『중국음식문화사』(민음사, 2010), 79쪽.

43) 魏伯珪, 『存齋集』 「存齋集卷之十七」.

44) 洪汝河 『木齋集』; 丁若鏞, 『茶山詩文集』; 朴趾源, 『熱河日記』 「銅蘭涉筆」; 李德懋, 『靑莊館全書』 「耳目口心書」 등 다수의 기록에서 ‘도철’을 탐식하는 존재로 은유하며 사용하고 있다. 목민심서에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45) 『山海經』, 「北次三經」.

46) 도철은 『左傳』, 『呂氏春秋』, 『神異經』, 『山海經』 등 많은 중국 문헌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문헌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 도철의 모습이 매우 다양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다수 있는데, 중국의 고고학자이자 음식문화사 전문가인 왕린상(王仁湘, 1950-)은 도철문이 주나라의 청동기뿐만 아니라 식기구에 많이 장식된다고 하면서, 도철문을 상징하는 수면문의 다양성을 언급하였다. 왕린상 저, 주영하 역, 앞의 책, 77쪽.

있다. 그렇다면 이 도철문이 정뿐만 아니라 보개의 미명의 수면상과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필자는 보와 궤에 장식된 문양도 도철 문양의 일종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문헌적 근거와 조형적 근거를 살펴보자.

성호 이익(星湖 李瀼, 1681-1763)의 『성호사설(星湖僿說)』 속 「만물문(萬物門)」에 나오는 「용생구자(龍生九子)」편을 살펴보자. 이 기록에는 도철문에서부터 거북문 그리고 보궤불식의 내용까지 모두 거론하여 주목된다.<sup>47)</sup>

도철이란 것은 『여씨춘추』에 '주나라 鼎에는 饕餮를 새겼는데, 머리만 있고 몸뚱이가 없는 것은 사람을 잡아 삼키다가 목구멍에 넘어가기 전에 해가 그 몸에 미쳐서 죽었다고 하였으니, 이는 대개 사람이 음식 탐내는 것을 경계한 말이고, 『주례』에는, “보궤 뚜껑에 거북 모습을 만들어 새겼다” 하였으니, 이도 역시 거북이란 능히 먹지 않고 사는 까닭에 사람이 음식 탐내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이다. 또 이른바 ‘簠簋不飾’이라는 말도 음식 경계하지 않음을 이르는 것이다. 옛사람은 이런 器皿에도 매양 탐식하지 말라는 뜻으로 경계하였으니, 이 도철을 상징한 것과 서로 같은 것이다.

이 내용을 통해 제기에 도철문과 거북문을 장식한 연유를 알 수 있다.<sup>48)</sup> 이익은 『여씨춘추』의 ‘남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것’이란 구절을 ‘탐식’으로 해석함으로써, 식기나 제기 위에 도철문을 장식하는 이유를 탐식을 경계하고자 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기존 문헌들이 대부분 주대의 정(鼎)에 장식된 도철문을 언급하는 데 그친 것에 비해, 이익은 도철문과 『주례(周禮)』에 언급된 거북문을 병거(竝舉)하여 제기의 문양이 탐식을 경계하고자 한 목적으로 장식된 것임을 언급하고, 더 나아가 ‘보궤불식’이란 용어까지 제시하였다. 즉, 간단한 문장 안에서 ‘제기-문양-음식’의 긴밀한 상관 관계가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궤불식의 ‘식(飾)’이 도철문이나 거북문을 의미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다.

47) 李瀼, 『星湖僿說』 제6권, 「萬物門」 「龍生九子」. “饕餮呂氏春秋云周鼎饕餮有首無身食人未咽害及其身蓋戒人之貪于飲食也 周禮簠簋上作龜蓋龜能不食故戒人之食所謂簠簋不飾者謂其不戒也 古人於器皿每以貪食爲戒與此上相類.” 한국고전번역원 DB에는 원문에 언급된 ‘보궤불식’이 ‘보궤는 꾸미지 않는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보궤가 꾸며지지 않았다’라고 번역해야 옳다고 여겨진다.

48) 이익이 실제로 이 원전들을 확인했는지 혹은 다른 문헌에 실린 『여씨춘추』의 내용을 재인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청동기의 도철을 탐욕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한 것은 『여씨춘추』 이래로 중국의 금속학자들이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이익의 기록처럼 거북문과 보궤불식을 병거하면서 도철과 거북의 의미를 도출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이 기록은 이익이 접한 중국 여러 문헌 속 내용을 종합하고 정리하였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조형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자. 주대의 정에 장식된 도철문이 보케불식의 장식을 의미한다는 직렬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의 도철문과 조선시대 보케의 수면문은 조형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상주시대의 도철문은 넓은 평면에 얇은 부조로 장식되었고 원과 곡선의 유기적이고 기하학적인 선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비해 조선시대의 보는 전체 기신(器身)의 중심에 위치하지만 전체 제기의 크기에 비해서 작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저부조가 아니라 고부조이고, 궤는 기신이 아닌 굽에 음각으로 장식되었다. 보에 장식된 도철문이 3차원적 입체형상이라면, 궤에 음각된 도철문은 평면 장식이다. 이런 외형적 차이로 조선시대 보와 궤를 도철문으로 선뜻 연결시키기 어렵다. 또 보와 궤의 수면상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조형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도철문으로 부를 수 있을까? 필자는 중국 고대 청동기 정의 도철문 외에도 중국과 조선의 보와 궤의 수면상 중 도철의 특징을 닮은 수면문은 도철문으로 부를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도철문의 형상의 변화폭이 매우 크고 다양했을 뿐만 아니라, 도철문을 표현하는 조형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징이라 할지라도 조형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49)</sup> 또 앞서 언급한 도철문의 특징인 ‘정면향의 얼굴, 부릅뜬 눈, 큰 뿔, 많은 털’ 등 여러 요소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어 도철문을 형상화한 것으로 여겨진다(표3).<sup>50)</sup>

다음으로 살펴볼 보케불식의 문양은 거북문이다. 제기에 탐식을 경계하기 위해서 장식하는 문양으로 도철문 외에도 거북문이 거론되었다. 거북이란 이익의 언급대로 생물이 먹지 않고도 산다고 믿어 음식 탐내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으로 보았다. 과연 실제 유물에서도 거북문이 장식된

49) 왕린상이 보와 궤의 도철문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상주시대 제기와 식기구에 장식된 도철문의 크기와 위치를 언급한 대목도 필자의 분석과 일치한다. 즉, 상대 청동기에는 기물의 중심부분에 새겨지고 형상이 큰 데 비해서 주대에 이르르면 형상이 작아지고 굽이나 손잡이에 새겨진다고 하였다(왕린상 저, 주영하 역, 앞의 책, 77쪽). 이러한 변화와 현상이 보와 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이러한 경향이 조선후기의 보케에도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50) 표3은 지면 한계상 중국과 조선의 다양한 예서 속 보케의 조형과 문양을 선별한 것이므로, 중국과 조선 보케의 변화과정을 모두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필자는 중국과 조선시대 예서에서 확인 가능한 보케 도설을 최대한 수합하여 세밀한 조형적 분석을 진행하였고 兩國 보케의 조형 비교와 도철문의 양식 분석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을 기약하고자 한다.

표3-중국·조선의 예서 및 의례에 실린 보·궤에 장식된 도철문(추정)과 거북상

장식	종류	중국(북송·명)		조선				
도 철 문	출처	紹熙州縣 釋奠儀圖	大明集禮	社稷宗廟 文廟祭器 都監儀軌	宗廟儀軌	社稷署儀軌	景慕宮儀軌	
	보							
		궤						
		-			-			
거 북 상	출처	禮書	三禮圖	纂圖互註 周禮	家禮輯覽			
	보							
	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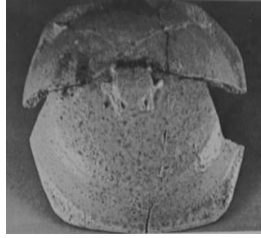
사례가 있을까?

중국의 각종 예서(禮書) 중 『삼례도(三禮圖)』, 『찬도호주주례(纂圖互註周禮)』 등에서는 상형(像形) 거북상을 뚜껑에 얹은 보와 궤가 그려져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예서에서는 『가례집람(家禮輯覽)』 정도의 극소의 문헌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도철문으로 장식된 보와 궤는 제작되었지만, 거북상을 뚜껑에 얹은 보와 궤는 실제 유물로 아직 확인된 바 없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보와 궤가 제작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고려시대 초기에 운영되었던 백자 가마인 ‘용인 서리’에서 거북상을 장식한 보와 궤의 뚜껑이 다수 출토되어 실제 제작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도9, 도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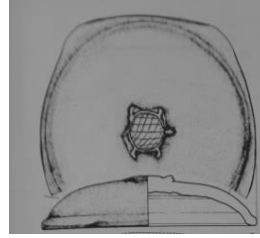
고려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거북 장식 뚜껑을 갖춘 백자 보궤가 생산되



도9- 白磁祭器籠,  
현재 높이 30cm,  
고려 초, 용인 서리  
중덕요지 출토



도10-1- 白磁祭器籠蓋,  
고려 초, 용인 서리  
중덕요지 출토



도10-2- 도10-1의 도면과  
거북의 상세 모습

었던 사실을 통해 주례를 비롯한 예서와 이익의 언급이 입증된다. 최근 『삼례도』에 근거하여 용인 서리에서 발굴된 거북장식의 뚜껑이 보와 궤의 뚜껑임을 밝힌 연구가 있었지만, 거북을 장식한 연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sup>51)</sup> 필자는 앞서의 보궤불식에 대한 논의와 문헌사료를 통해 거북이 ‘불다식(不多食)’하는 존재로서 제기에 장식되어 음식을 담내는 것을 경계토록 하기 위해 장식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중국과 조선의 각종 예서에 그려진 제기 도설, 문헌에서 언급하고 있는 도철문과 거북문의 상징의미 그리고 실제 유물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궤에 장식된 수면문(獸面文) 중에 도철문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도철문 장식을 통해 탐식을 경계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거북문은 먹는 것을 절제하는 동물이므로 보궤에 장식된 거북문은 소식(小食)을 권장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보궤불식에서 불식(不飾)은 ‘불결하다, (뚜껑을) 덮지 않았다, 정돈하지 않았다’는 등의 기존의 해석보다는 ‘장식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 보와 궤를 장식하던 문양은 도철문이나 거북문으로, 도철문은 ‘계탐식(戒貪食)’을 의미하고 거북문은 ‘불다식(不多食)’을 상징하는 것으로, 결국 보궤불식은 보와 궤에 도철문이나 거북문으로 장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결과에 도달하였다(표4). 이렇게 해석할 때 비로소 왜 보궤불식이 청렴하지 않은 관리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51) 김효진, 「龍仁 西里 窯址 出土 高麗白磁 祭器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협동과정 미술사학 석사학위논문(2010).

표4- '보궐불식(匱篋不飾)'에 관한 해석과정과 '불식(不飾)'의 문양에 관한 분석

의견	상세 내용	
기존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미는 탐오한 관리를 代喩</li> <li>• 보궐을 '정돈하지 않았다', '간수하지 않았다'로 해석</li> </ul>	
문제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帷薄不修 不廉汚穢와 비교해 '탐오한 관리'와 보궐불식의 불명확한 인과관계</li> <li>• 보궐의 장식 종류와 상징의미의 관계에 대해 연구되지 않음.</li> </ul>	
필자의 분석과정과 결론	보궐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곡식을 담은 반기</b>로 탐오와 직접적으로 관련됨.</li> <li>• 제사상의 다른 제기와 비교하여 가장 조밀하게 장식되어 <b>문양의 존재가 특별히 중요한 제기</b>라고 할 수 있음.</li> </ul>
	불식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식의 '식'이 탐오와 청렴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됨.</li> <li>• 중국과 조선의 현전유물과 예서와의 분석</li> <li>① 보궐에 부착된 미상의 수문문(기존)을 도철문과 조형적으로 비교하여 그중 일부가 <b>도철문임을 밝히고 탐식 혹은 탐오를 경계</b>하기 위해 장식한 것으로 해석</li> <li>② 보궐(고려)의 <b>거북문이 청렴을 상기</b>시키는 상징물로 장식된 것으로 분석</li> </ul>
	보궐불식 재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와 궐(곡식을 담은 반기)를 도철문(탐오를 경계하는 상징물)이나 거북문(청렴을 상기시키는 상징물)으로 장식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li> <li>• 보궐불식이 탐오한 관리를 代喩하는지 논리적으로 규명</li> </ul>

## V. 맺음말

보·궐과 같은 제기는 기물이 갖는 정치적인 의미, 제상에 진설되는 위치와 음식, 기물의 조형과 장식 등을 두루 살펴봐야 할 복합적인 주제이다. 이 글에서는 보궐불식이라는 정치적 관용어를 단초로 하여, 보궐이 갖는 다양한 특징들을 추출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궐불식(匱篋不飾)이란 사자성어를 통해서 조선시대 제기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시도함으로써, '보궐불식'의 진의(眞意)를 밝히고 '보궐불식'의 재해석을 통해 '언어-상징-물질'이 갖는 상호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우선 보궐불식은 정치용어로서 조선시대 정치 공간에서 꾸준히 사용되었다. 정치사상의 측면에서 보궐불식은 법치주의적 형법에 대응하는 유교주의적 예치를 상징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중국의 가의는 죄목을 구체적이고 직설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간결하게 은유적으로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신의 염치를 차릴 수 있다고 보았다. 조선시대의 보궐불식은 탐묵(貪墨)을 상징하는 본연의 뜻에서 확장되어 유사(儒士)들

로부터 고전적 권한을 인정받고 예치를 상징하는 정치적 용어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이 보케불식의 언어적인 특성이라면, 다른 측면에서 보케불식의 상징과 물질적인 특성을 파악하였다. 즉, 보케불식의 ‘식(飾)’이 가리키는 구체적인 문양의 종류를 밝히고 이 문양으로 장식하지 않은 것이 왜 불렴(不廉)을 상징하게 되었는지에 관해 논증하였다. 문헌자료와 실제 유물을 통해서 보케를 장식한 문양은 도철문과 거북문이며, 이는 청렴과 절식을 상징하고 탐욕을 경계하라는 권계(勸誡)를 상징함과 동시에 제기의 장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보케불식은 ‘보케가 (도철문이나 거북문 등으로) 장식되지 않았다(꾸며지지 않았다)’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鼎)의 기하학적 수면상(獸面像)은 도철문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중국과 조선에서 제작된 보케의 수면상을 당대(當代)에 도철문으로 널리 인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철문의 다양한 변형과정이 예서에 분명히 반영되어 제기를 대표하는 상징물로써의 역할이 유지되었다. 또한 예서 속 도설이 실물로 제작되는 반복적인 과정이 시공을 넘나들며 지속되었다. 후대의 정치적 관용어로서의 보케불식과 장식(도철문, 거북문)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 고대에 ‘보케불식’이란 용어가 조어될 때부터 보케는 특정한 장식이 중요한 제기란 점과 ‘언어-물질-상징’의 연결고리에 대한 태생과 분화의 경계(境界)를 흥미롭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보케불식에 ‘식’의 중요성과 실체를 규명해 제기 문양이 단지 장식이 아닌 복합적인 상징물의 집합체임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제기 중에서 보케의 일부 문양을 분석한 시도에 불과하지만, 조선시대 제기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석과 통합적 연구를 하고자 새롭게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 글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공자 이래 문식에 관한 관념이 동아시아 조형세계에 미친 영향이나 조선시대 왕실용 제기 문양의 조형적 변천과 의미를 규명하는 연구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보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家禮輯覽』.  
『國朝喪禮補編』.  
『大明集禮』.  
『沙溪全書』.  
『社稷署儀軌』.  
『三禮圖』.  
『釋奠儀』.  
『紹熙州縣釋奠儀圖』.  
『承政院日記』.  
『呂氏春秋』.  
『禮記』.  
『禮書』.  
『日省錄』.  
『朝鮮王朝實錄』.  
『周禮』.  
『纂圖互註周禮』.

- 가의 저, 박미라 역, 『신서』. 소명출판, 2007.
- 고준휘, 「양산 가야진사유적 출토 陶磁祭器의 현황과 성격」. 『東岳美術史學』 17, 동양미술사학회, 2015.
- 곽현우, 「朝鮮時代 王室의 金屬祭器와 祭器圖說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 국립고궁박물관, 『宗廟』. 2014.
- 김상준 외, 『유교의 예치이념과 조선』, 청계, 2007.
- 김종임, 「朝鮮時代 王室 金屬祭器 研究: 宗廟祭器를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 \_\_\_\_\_, 「朝鮮王室 金屬祭器 研究: 宗廟祭器를 中心으로」. 『美術史學研究』 277, 2013.
- 김한규, 「賈誼의 정치사상-한제국 질서 확립의 사상사적 일과정」. 『역사학보』 제63집, 1974.
- 김효진, 「龍仁 西里 窯址 出土 高麗白磁 祭器 研究」. 고려대학교 문화재협동조합 미술사학 석사학위논문, 2010.
- 박봉주, 「조선시대 국가 祭禮와 尊罍의 사용」. 『朝鮮時代史學報』 58, 조선시대사학회, 2011.

- \_\_\_\_\_, 「조선시대 국가 祭禮와 饗豆의 사용」. 『東方學志』 제159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2.
- 박수정, 「조선초기 儀禮제정과 犧尊·象尊의 역사적 의미」. 『朝鮮時代史學報』 60, 2012.
- 사공영애, 「朝鮮 王室 香爐 研究-古銅器形 香爐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 심재우, 「조선시대 능지처사형 집행의 실상과 그 특징」, 『사회와 역사』 90, 한국사회사학회, 2011.
- 안성희, 「朝鮮時代 陶瓷祭器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 \_\_\_\_\_, 「16-17세기 朝鮮 白磁祭器의 새로운 경향」. 『美術史學』,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8.
- 呂不韋 지, 김근 역주, 『여씨춘추』. 살림, 2005.
- 왕린상 지, 주영하 역, 『중국음식문화사』. 민음사, 2010.
- 유강하, 「도철은 어떻게 진화하였나: 한대 포수함환 화상석의 함의에 대하여」. 『연세학술논집』, 연세대학교, 2007.
- \_\_\_\_\_, 「饗養紋의 含意 變化에 대하여: 靑銅器 시대부터 漢代까지」. 『중국어문학논집』 52, 중국어문학연구회, 2008.
- \_\_\_\_\_, 『도상(圖傷), 문명의 이동을 말하다』. 심포지움, 2010.
- 이귀영, 「宗廟祭禮의 祭器와 祭需의 진설 원리」. 『美術史學』 27,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3.
- 이용진, 「中國 靑銅器 鼎의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 임민혁, 『조선의 禮治와 왕권』. 민속원, 2012.
- 장경희, 「조선후기 王室祭器 鑄成 鑪器匠 연구」. 『韓國工藝論叢』 11, 한국조형디자인협회, 2008.
- \_\_\_\_\_, 「종묘 소장 王室祭器의 銘文 분석: 제작연대와 사용처의 고증을 중심으로」. 『도시역사문화』 8, 서울역사박물관, 2009.
- \_\_\_\_\_, 「殿崇德 제기유물의 제작시기와 양식 고찰: 종묘제기와 비교를 중심으로」. 『조형디자인연구』 18, 한국조형디자인학회, 2015.
- 張南原, 「조선시대 喪葬공예품의 의미와 구성: 서울·경기 지역」. 『미술사연구』 24, 미술사연구회, 2010.
- 정소라, 「朝鮮時代 陶瓷祭器 研究 -충효동출토 분청제기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_\_\_\_\_, 「朝鮮前期 吉禮用 粉靑祭器 研究-忠孝洞窯址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美術史學研究』 223, 한국미술사학회, 1999.

- 정유경, 「도철과 메두사 고대 중국과 도철: 그리스의 종교적 이미지에 반영된 정치 제도 비교」. 『동아시아 문화와 예술』 4, 동아시아문화학회, 2007.
- 최순권, 「조선시대 彝尊에 대한 고찰」. 『생활문화연구』 14, 국립민속박물관, 2004.
- 최진덕, 「주자학적 예치의 이념과 그 현실」. 『유교의 예치이념과 조선』, 청계, 2007.
- 하은미, 「宗廟祭器와 朝鮮時代 祭器圖說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협동과정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 洪貞珠, 「朝鮮王朝時代의 祭具에 關한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83.



## 국 문 요약

이 글은 중국 고대에 조어진 사자성어인 보케불식(篋簋不飾)을 통해 조선시대 제기(祭器)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시도함으로써, '보케불식'의 진의(眞意)를 밝히고 '보케불식'을 재해석하여 제기 문양의 상징과 역할을 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중국과 조선의 정치공간에서 사용된 보케불식의 의미와 용례를 분석하였다. 보케불식은 범치주의적 형법에 대응하는 유교주의적 예치를 상징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가의(賈誼)는 죄목을 구체적이고 직설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간결하게 은유적으로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신의 염치를 차릴 수 있다고 보았다. 조선시대의 보케불식은 탐묵(貪墨)을 상징하는 본연의 뜻에서 확장되어 유사(儒士)들로부터 고전적 권한을 인정받고 예치를 상징하는 정치적 용어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이 보케불식의 정치언어적인 특성이라면, 다른 측면에서 보케불식의 물질문화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즉, 보케불식의 '식(飾)'이 가리키는 구체적인 문양의 종류를 밝히고 이 문양으로 장식하지 않은 것이 왜 불렴(不廉)을 상징하게 되었는지에 관해 논증하였다. 정치언어로 사용된 보케불식을 물질적인 측면에서 조명한 결과, 기존의 해석, 번역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문헌자료와 실제 유물을 통해서 보와 궤를 장식한 문양은 도철문과 거북문이며, 이는 청렴과 절식을 상징하고 탐욕을 경계하라는 권계(勸誡)를 상징함과 동시에 제기의 장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실제 현전하는 조선의 보와 궤의 도철문과 거북문을 비교해본 결과 문헌기록과 물질문화 간에 도철문과 거북문의 의미와 조형이 일부 유물에서 서로 일치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보케불식은 '보궤가 (도철문 혹은 거북문 등으로) 장식되지 않았다(꾸며지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정(鼎)의 수면상(獸面象)은 도철문으로 알려져 있지만, 보와 궤의 수면상을 도철문으로 인식하고 탐식을 경계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은 인식되지 않았다. 도철문의 다양한 변형과정이 예서(禮書)에 반영되면서 제기를 대표하는 상징물로서의 역할이 유지되고 실제로 제기의 문양으로 반영되어 제작되었다. 이러한 유기적인 과정이 중국과

한국의 시공을 넘나들며 지속되었다.

문헌을 조사한 결과 조선시대 보궤불식에서 불식(不飾)에 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으며, 조선시대 예서에 보궤의 도철문과 거북문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뜻을 숙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이익(李瀾)이 도철문과 거북문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한 것은 그만큼 문양의 의미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 불인식의 경계 속에서도 관용적으로 ‘보궤불식’이 사용되고 ‘도철문과 거북문’이 예서의 도설로 끊임없이 나타나며 실제 제기로 제작된 양상은 흥미로운 지점이자 또 다른 연구의 대상이다.

앞으로 제기의 특정 문양의 종류와 장식된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정치, 사회, 철학, 문화사적인 고찰이 심도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제사에 사용된 제기의 문양에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제기의 장식은 무의미한 겉치레가 아니라 의례사항과 정치철학이 응집된 상징과 기호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투고일** 2016. 6. 21.

**심사일** 2016. 7. 30.

**게재 확정일** 2016. 8. 22.

**주제어(keyword)** 제기(祭器, ritual vessels), 보궤불식(簠簋不飾, *bogwebulsik*, *bogwe*), 보(簠, *bo*, rectangular ritual grain vessel), 궤(簋, *gwe*, round ritual grain vessel), 예서(禮書, ritual books), 의궤(儀軌, *uigwe*), 도철(饗饗, the Taotie), 거북(龜, turtle pattern), 이익(李瀾, Yi Ik), 탐식(貪食, greed for food), 소식(小食, eating in moderation)

### The Significance of the Term *Bogwebulsik* during the Joseon Period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Taotie and Turtle Patterns* on Ritual Vessels

**Koo, Hye-in**

This paper aims to disclose the true meaning of *bo-gwe-bul-sik*, a term coined in ancient China, using a new way of studying ritual vessels of the Joseon period (1392–1910), and to reinterpret the phrase in order to shed new light on what the Taotie pattern on ritual vessels symbolized and what role such vessels played.

This paper analyzes the meaning and use of the term *bogwebulsik*, which was used by politicians in China and Korea. It may be said that the phrase symbolized *yechi* (Confucianism-based humanistic governance) versus legalism-based criminal laws. Jia Yi (200 BC–169 BC), a Chinese poet and statesman, thought that it was possible to make an indicted high-ranking official feel a sense of shame while saving his face by alluding to what he had been charged with without mentioning it specifically or directly. It appears that *bogwebulsik*, which inherently meant greed and gluttony, was used as a political term symbolizing *yechi* with regard to high-ranking officials whose classical rights were recognized by Confucian scholars. Putting aside political terminology, this paper tries to identify the elements of the term pertaining to materialistic culture, and to determine which specific types of patterns were related to “sik” (餸) in the phrase, and why objects that were not adorned with this pattern came to symbolize a lack of uprightness. This analysis has produced a different result to existing interpretations of the meaning of the phrase.

A study of the relevant literature and relics showed that most of the patterns used to adorn ritual vessels were Taotie and turtle patterns, which played a key role in adorning such vessels and symbolized an admonition to maintain one’s uprightness, eat in moderation and refrain from gluttony. This study perceived a certain congruity in the meaning of the Taotie and turtle patterns between the relevant literature and the materialistic culture. Thus, this paper concludes that it makes more sense to interpret the phrase as meaning that the vessels were unadorned (with Taotie and turtle patterns).

It is generally known that images of a beast’s face on a cauldron belong to the category of Taotie patterns, but the fact that the images represented a warning against gluttony is not recognized. With the compilation of ritual books containing the process of diverse changes in the Taotie patterns, their role in representing ritual vessels was maintained. The process continued in China and Korea until the days of the Korean Empire (1897–1910).

The relevant literature shows that people of the Joseon period did not elaborate on the meaning of “*bulsik*” in the phrase *bogwebulsik*. And it is also doubtful whether people of that period knew the right meaning of the Taotie and turtle patterns made on ritual vessels, although they appear in ritual books used at that time. In a way, Yi Ik’s (a philosopher of the Joseon period) elaboration on the meaning of the Taotie and turtle patterns may testify to the fact that the meaning of the patterns was not generally known. It is an interesting fact (and an object of study) that the term was frequently used on the border between recognition and non-recognition, and that the Taotie and turtle patterns continually appeared in illustrations in ritual books and were actually used in the production of ritual vessels.

It is necessary to conduct an in-depth study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types of specific patterns made on ritual vessels and their background from a political, social, philosophical, and cultural history perspective. It is clear that the patterns made on formal ritual vessels had a definite meaning and purpose. In this respect, it would make sense to view them as symbols and signs that accumulated various ideas related with rituals and political philosophy rather than as mere adornments.